

제25회 양봉의날 행사 4월11일 경북대학교서

「아까시나무의 개발과 이용」농가교육 심포지움

올해 제25회 양봉의날 기념 행사는 4월11일 경북대학교 전자계산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원래 양봉의 날은 4월4일이다. 이 날을 양봉의날로 정한 의미는 4월5일 식목일을 즈음하여 우리 양봉농가들도 전국도의 밀원화를 위해 밀원수 하나라도 심고 가꾸는 자세로 생산기반을 다져나가므로써만이 양봉산업 중흥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결의를 굳게 다지는데 있었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우리에게 젖줄이자 생명선인 아카시아 밀원자원의 보호, 증식 문제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이를 수행하자면 먼저 학술적 이론을 바탕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종이란 인식범위를 넓혀나가 고자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하여 아까시나무연구회(회장 임경빈 박사) '97 정기총회와 아까시나무 학술심포지움 행사와 병행 개최키로 하고, 행사장 및 발표자들 사정에 의하여 일주일 늦은 11일에 개최하게 된 것이며 이 대열에 양봉농가들도 대거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이 행사는 '97 양봉농가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집중

교육으로 첫번째 실시되는 것으로서 밀원자원 증식부문에 해당한다. 그러기 때문에 대구시 경북대학교 행사장에 전국 13개 시·도지회별로 단체 이동으로 집결될 예정이며 먼 거리에서 이동 참여하느라 고달픈 일정이겠으나 이날 행사의 본 뜻을 이해하여 모든 양봉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행사일정과 행사 참석에 유념할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제25회 양봉의날 및 제6회 아까시나무심포지움 행사안내

▲일시: 1997. 4. 11(금요일)

▲장소: 경북대학교 전자계산소 회의실(4층)홀 (자동차는 대학교 북문으로 들어와서 대강당 아래 주차장 사용)

▲행사참석 협조사항

△양봉협회·아까시나무연구회 집행부는 4월10일 대구시 숙박

△양봉협회 대구. 경북지회 회원들은 행사개회 09:00시까지 입장하시기 바람

△제주·대구경북지회를 제외한 11개 지회서는 이동도착 가능한대로 행사장에 입장

△점심은 시·도지회별 도시락 준비

△각 지회서는 행사 참석시 각 회원들로부터금 아까시나무연구회 신규가입과 '97년도 회

비(年 10,000원, 가입금 없음)를 납부할 채비를 갖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회 아까시나무심포지움 연제 및 발표시간

시 간	연 구 발 표 연 제	발 표 자
09:30~10:00	외래 유전자 도입에 의한 아까시나무 신품종 육성	한경환*(금호생명과학연구소) 신동일(대구효성가톨릭대학) 박용구(경북대학교)
10:00~10:30	미국 아까시나무 천연집단(Coweeta, North Carolina) 내에서의 유전적 구조	장진성(성균관대학교)
10:30~11:00	환경수로써의 아까시나무 역할	우중호(임업협동조합)
11:00~11:30	아까시나무림의 시업 관리기법	백노학(산림청 중부임업시험장)
11:30~12:00	아까시나무 목재의 이용과 전망	박정환(임업연구원)
12:00~12:30	아까시나무의 가축사료화에 대한 이용과 전망	조익환(대구대 축산학과)
12:30~13:00	종합토론	임경빈(한국아까시나무연구회) 외



▶아시아양봉협회(A.A.A.)회장 데스오 사카이(酒井哲夫) 박사(오른쪽에서 두번째 분)가 「월간 양봉계」 창간 30주년 학술심포지움행사 참석차 내한한 길에 3월24일 본협회를 방문, 한국의 양봉현황을 경청했다.

'97 꿀벌축제 - 양봉산물 전시회

3월27일·28일, 인천지회 주관 개최

올해 촉발기금 지원에 의해 실시되는 '97 양봉가 교육 및 전시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양봉산물전시회가 본협회 인천지회 주관으로 오는 3월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인천광역시농촌지도소 강당에서 열린다.

이회 주관하여 개최됐던 '96 꿀벌축제 행사의 성공사례를 보고 인천광역시에서도 이같은 행사 개최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껴 올해 본협회 사업계획에 의한 전시회개최 계획을 본협회에 신청함으로써 착수하게 된 것. 인천지회는 최근야야 독자적 지회조직으로 창설된 단계에서

아직까지 양봉인들의 단합이 이뤄지지 않아 광역도시로서의 소비시장 권역이 넓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역내 양봉농가들의 소비시장 확보나 확충에 있어선 타지역의 양봉농가들 만큼은 활발치 못한 점을 만회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은 지회 창설에서 보다 실리적 사업전개를 위하여 인천농촌지도소의 지도지원에 힘입어 인천양봉작목반을 구성했으며, 이도 마음 놓을 수 없다며 급기야는 지난 3월11일 「인천양봉영농조합법인」까지 등록을 마친 상황. 등록사항에 의하면 △조합원 수는 17인 △자본금은 7천2백

만원 △임원진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 5명(대표이사 조병만),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재지는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417(인천농촌지도소내)이며 이미 작목반 구성때에 벌꿀 등록상표도 「벌나라」로 이름을 지어 판매망 확충에 적극 나서는 등 의욕이 대단하다.

선히타 전열판!!

□니크롬선 제품이 아닙니다... 먼 전체가 특수한 발열물질로 된 반도체 세라믹판입니다.

□화재의 위험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온도를 제어하므로 이불속에 조절기 없이 넣어두어도 안전합니다.

... 따라서 벌통내 내·외부 어느 곳이나 설치가능하며, 사용이 간편합니다.

□국내 유일의 양봉용 전열제품입니다... 전열판과 자동온도조절기 모두 형식승인을 갖춘 확실한 제품입니다.

[형식승인번호 : 전 3-7-4613]

구입방법 ▶전열판 : 1장당 5,000원

▶자동온도조절기 : 1개당 50,000원(100군에 1개 필요)

▶우송료 : 전열판 50장까지 3,000원

부여 밀 봉원 ☎ (0463) 836-1212
서울:(02)536-2953

충남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96-1 대표 김수기
예금온라인 : 우체국 310375-0011817

양봉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봉가 여러분 그동안 저희 (구)유달양봉산업은 1985년 창업 이래 많은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여기까지 오게되기까지 여러모로 도와주신 많은 양봉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벌꿀구매처

(구)유달양봉산업 T. 0342-716-5000~1

내고향전통식품 대표 황성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98-6
벌꿀집하장 약도 : 판교 IC에서 수원간 국도 4.5km 지점